

전남도, 25개국 참여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막

오늘부터 8월25일까지 12개 섬 신안·진도·완도 등 100여명 참가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자원봉사 "지속가능 발전·국제인지도 제고"

전남지역 12개 섬에서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세계 25개국 1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15일부터 8월25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아일랜드'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에서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과 2026여수세계

섬박람회, 섬의 문화·인물·경관 등 특별한 자원을 홍보한다. 워크캠프는 섬 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년봉사단체 '섬즈업', '섬마을 인생학교'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진행된다.

참가 청년들은 신안, 진도, 완도, 여수의 12개 섬에서 각 6박 7일간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신안 도초도·비금도·하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서 해안 정화 활동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 방문, 한국화 작가들과 함께하

는 라이브 섬 스케치 교실이 운영된다. 진도에선 하조도·상조도·나배도에서 19세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 함대 선장 바실 헐이 '세상의 극치, 지구의 극치'라고 표현한 조도군도를 벽화로 제작하고 신전해수욕장 환경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완도에선 소안도를 중심으로 보길도·노화도·구도를방문해 소안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글로컬스쿨을 운영하고, 천연기념물 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있는 미라리해수욕장에서 전남도 섬코디네이터와 함께 정화 활동과 가고 싶은 섬 알리기에 나선다.

여수 금오도와 안도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비렁길투어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마을 주민과 교류 시간을 갖는다.

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100년 역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35개국 302명의 국내외 청년이 전남 17개 섬에 방문해 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3년 워크캠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신안에서의 활동은 유네스코 본부의 특별 사진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며 전남의 갯벌과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국내외 청년을 통해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청년이 협력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도 96%"

전남도가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 만족도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행한다.

2023년부터 상담 접수 전담 근로자를 채용하고, 동부청사(순천) 대면 법률상담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도민의 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315건, 2022년 1329건, 2023년 1341건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737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학고폭력 등으로,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125건이 이뤄졌다.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한 집으로 이사한 정 모 씨는 임대인이 정 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입고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법률상담관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임차권 등기를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법적 불안을 해소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1899-8272)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속하면 된다. 매주 1회 진행되는 대면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진행되므로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천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이 개장한 지난 13일 광주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인근 광주천에서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광주천 왼쪽 물놀이장은 주암호에서 공급되는 깨끗한 물이다. 김양배 기자

광주천에 '자연친화형 물놀이장' 개장

시, 용산동 동산타워 주변 조성 8월까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시가 본격적인 여름피서철을 맞아 광주천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을 개장했다.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주변 광주천에서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에서 열린 개장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미정 광주시의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개장행사에서는 동심을 사로잡는 물총놀이 등 체험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강 시장은 어린이들과 물총놀이 등 물

놀이를 함께 하며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환경공단·동부서방사에서 힘을 모아준 덕분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을 열 수 있었다"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선물도 되길 바란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동구 용산동 광주천변에 길이 60m, 폭 25m로 조성됐다.

광주시는 총 1억6300여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암호의 깨끗한 원수를 끌어온다. 주암호 원수는 5.6km 관로를 통해 끌어오며, 1일 기준 2만8000톤(약 320만원*50일)을 지속 공급한다. 광주보

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도 확인했으며, 매일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해 수질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이용객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옆에 대형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균 수심 30cm로 얕은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주환경공단·광주동부서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았다.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기간 사전안전교육도 실시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장비, 구급약품 등을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포함한 3명(주말 5명)이 상주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 해조류 양식연구 100년 "미래 발전 모색"

전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왕인실에서 국립수산물연구원, 한국조류학회와 공동으로 '근현대 해조류 양식연구 100년 심포지엄'을 열어 해조류산업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연구는 해조류 양식의 본고장인 전남에 1924년7월 전남도 수산시험장이 개소하면서 처음 시작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조류 연구 100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양식연구 과정과 변화를 조명하고, 향후 새로운 100년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해조류 양식연구 100년의 도전과 미래 비전', '한국 연안 바다

숲 조성사업의 현황과 미래전략', '김 산업 현황 및 지속순환을 위한 과제' 등이 소개됐다.

종합토론에선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과 전략, 학계 차원의 미래 해조류 연구 방향, 전남도 해조류 양식산업 발전 방향,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해조류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지원 방향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 해조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성료

광주시는 지난 12일 '제10회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아이디어 기획 58건 △제품·서비스 개발 17건 등 2개 분야에 총 75건이 접수,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휴먼러빗'의 '부동산 안전거래 플랫폼 보급AI리'가 받았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추천받을 수 있는 대화형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제안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시제품을 선보인 '제품·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은 '도서관을 활용한 정부부처 간행물 연구보고서 검색시스템'을 낸 '리버트리'가 수상했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팀들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도(멘토링) 지원을 거쳐 9월 '행정안전부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 20억 투입

가축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10월까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전남도가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당초 지원했던 16억원(3800호)에서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하고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축 사료 섭취량 감소를 비롯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축산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공급해 농가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취약 농가 720호에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 점검도 실시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15

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지붕 물뿌리기, 환풍기 가동 등 가축 및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